

Only-One기업 No.41

## 치쿠스이 캐니컴([株]筑水キャニコム) 흥내는 절대 안 낸다

### (1) 기업개요

소재지	福岡県うきは市吉井町福益90-1
설립연도	1948년
분야	산업용운반차량 제조 판매
자본금	3억 4740만 엔
URL	<a href="http://www.canycom.co.jp">http://www.canycom.co.jp</a>

### (2) 생산 제품

차량의 종류는 실로 다양하다. 승용차만이 자동차가 아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차량은 도로 위를 오가는, 사람들이 이동하기 위한 승용차 등이지만, 물건을 옮기기 위해 동력을 이용하여 만든 차량도 그 숫자가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짐을 싣거나 부리는 작업이 기계화되어, 운반작업 뿐만 아니라 화물의 적재에도 따로 인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산업용트럭 또는 물품취급 차량으로 분류되는 특수운반 차량 시장도 승용차 시장 못지않게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격전장이다.

일본에서 산업용 특수운반차량 제조 분야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기업이 치쿠스이캐니컴(이하, 캐니컴)이다. 이 회사 매출의 절반 이상은 산업용 차량 중에서도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기로 잘 알려져 있는 농업용 운반차량이다. 사실 이 분야의 시장규모는 공업통계에도 들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업체별 점유율 등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 회사의 영업실적을 근거로 추정해보면 일본 국내시장의 약50%는 캐니컴이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임업용 운반차량 등의 분야에서도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행복을 키우며 만족을 운반하는 인간집단’이라는 기업이념 아래 신시대의 가치창조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다른 회사의 흉내는 절대 안 낸다는 것이 창업 이래 줄곧 지켜온 이 회사만의 철학이었다. 독창적인 제품개발과 전국적인 판매망 그리고 철저한 고객관리가 캐니컴의 가장 큰 자산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탁월한 기능성과 이용의 편리성은 물론 디자인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업계최초의 독특한 운반차량을 연이어 개발해 내면서 업계 수위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 동안 캐니컴이 개발한 제품을 살펴보면 장남감에서나 볼 수 있을 만한 귀엽고 감직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운반용 차량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만들어진 차량의 대부분이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만들어낸 제품이라는 것이다. 산업용 차량의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며 성장한 전형적인 기업으로 볼 수 있다.



이 회사 제품은 크게 이동수단에 따라 수동 트럭과 동력 트럭으로 분류된다. 2륜 수동 트럭은 차로 운반할 수 있는 짐이라면 어떤 것이든 거의 실을 수 있지만, 몇몇 종류의 화물은 이동하는 동안 운전자가 특별히 차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2륜 수동 트럭은 상자, 드럼 통, 호퍼, 냉장고, 종이 두루마리, 연장통 등을 운반한다. 4륜 수동 트럭은 형태가 매우 다양해 작은 바퀴가 달린 차량, 높거나 낮은 평대(平臺) 트럭, 손수레, 선반이 달린 운반차, 왜건 등을 비롯해, 화물을 싣고 내리는 기계장치나 수압장치가 달린 여러 가지 수동 리프트 트럭 등이 있다.

한편 동력 트럭은 축전지와 전기 모터 구동장치에 의해 움직이거나 기계식 전동장치나 발전기가 장착된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 전동장치의 힘으로 작동된다. 가솔린 기관 대신 프로판 또는 디젤 기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승강기가 없는 플랫폼 트럭은 운반용으로만 사용되지만, 다른 동력 트럭들은 보통 유압식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도 있다.

### (3) 성장 과정과 Only-One 기술

캐니컴은 1948년 창업한 이후, 농업용 운반수송기계에서 시작하여 점차 임업, 토목건축업 분야로 개발범위를 확장해 왔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독창적인 모델의 각종 운반차량을 연이어 개발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숲 속에서 통나무, 원목 등의 운반을 목적으로 1980년에 개발한 야마비코(やまびこ)는 기존의 재목(材木)운반작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에는 산림에서 벌채한 재목은 험난한 지형 때문에 말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말에게 먹이기 위한 꼴을 준비한 다든지 이동 중에 휴식을 취해야 하는 등의 시간낭비로 운반 자체가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숲 속에서 벌채하는 작업을 보다 손쉽게 하고, 산세가 험한 지역에서 안전하게 재목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용 기계 제작에 착수한지 3년 만에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의 난관을 극복하면서 고성능의 운반능력을 갖춘 제품개발에 성공했던 것이다. 출시하자마자 제품 주문이 폭주했고 1986년에는 임야청장으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외에도 캐니컴은 짐받이가 회전하는 토목건축용 운반차 ‘샤치’와 농업용 운반차량 ‘사테라이트’ 등을 개발했으며, 최근 많은 사람들로 부터 주목을 받은 제품으로는 자유자재로 풀을 깎을 수 있는 ‘마사오’라는 풀 깎는 기계이다. 기본적인 모형은 골프용 카트와 유사하게 생겼으며 운전을 즐기는 동안 자동으로 풀이 깎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 손쉽게 필요한 부분의 잡초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종래 찾아보기

어려웠던 4륜구동으로 제작하였고, 특히 디자인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디자인 경시대회에서 각종 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칼날의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등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사용이 편리하게 되어 있다. 가격은 경쟁기업의 동종제품과 비교하여 2배가량 비싸지만 작업효율 등을 고려한 단골고객들이 많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4) 상대적 강점

캐니컴의 성장에는 일본 전역에 깔려있는 판매점의 역할이 주요했다. 각 지역마다 유력한 산업용 기계판매점과의 돈독한 거래관계를 맺은 것이 결과적으로는 정확한 고객의 정보를 얻고, 제품판매의 신속한 사후관리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약 4천 점포 이상의 판매점과 거래를 하고 있으면,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업소가 이들 판매점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산업용 운반차량 업계가 캐니컴의 독무대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전국적인 판매 네트워크와 타사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는 독특한 디자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품명에서도 캐니컴만의 독창성이 발휘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핑크레이디’라는 보행 운반용 기계가 있는가하면, 좁은 공간에서의 이동성에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는 시타마치코마치(下町小町)라는 소형특수자동차도 있다. 남이 흉내 내지 못하는 기술력과 디자인을 겸비한 캐니컴이 일본의 산업용 운반차량의 시장을 넘어 세계시장으로 도약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그 준비를 위해 이미 유럽과 미국에 판매망을 구축했다. 브랜드 파워와 함께 기능성을 겸비한 탁월한 디자인으로 승부한다는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 <참고자료>

치쿠스이 캐니컴 홈페이지(<http://www.canycom.co.jp>)

日刊工業新聞特別取材班編(2003), 『この分野一番企業』, 日刊工業新聞社.  
 經濟産業省 中小企業庁編(2006), 『元気なモノ作り中小企業300社』.